

1. 밑줄 친 낱말을 바르게 사용한 것은?
 ① 재산을 늘이다. ② 바지를 다리다.
 ③ 규모를 주리다. ④ 흥정을 부치다.

2. 다음 규정을 참고할 때, 올바른 발음 표기가 아닌 것은?

표준 발음법

제10항 겹받침 ‘ㄱ’, ‘ㄴ’, ‘ㄹ’, ‘ㄷ’, ‘ㅌ’,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ㅌ]으로 발음한다.

다만, ‘뱀-’은 자음 앞에서 [뱃]으로 발음하고, ‘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뽕]으로 발음한다.

뽕-죽하다[뽕죽하다] 뽕-둥글다[뽕뽕글다]

- ① 앓다[안따] ② 뱃다[뱃따] ③ 훑다[훑따] ④ 없다[업따]

3.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은?

- ① 나는 도무지 그 일을 할 수 있다.
 ② 어제는 비와 바람이 심하게 불었다.
 ③ 그는 차마 할머니 곁을 떠날 수 없었다.
 ④ 동생은 어제 작은아버지 댁에 갈 것이다.

4. 다음 글을 바르게 고쳐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옛말에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 안에 가시가 돋는다.”라고 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독서를 중요하게 여겨 왔다. ㉠ 그래서 가장 활발하게 책을 읽어야 할 청소년들이 책을 가까이하지 않는다. ㉡ 나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전에는 시내버스 안에서 책을 읽는 사람을 쉽게 ㉢ 발견될 수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 특히 청소년들이 책을 ㉣ 읽을 모습을 찾기는 더욱 어렵다.

- ① ㉠: 이어질 내용을 고려하여 ‘왜냐하면’으로 수정한다.
 ② ㉡: 앞뒤 문장의 흐름을 고려하여 삭제한다.
 ③ ㉢: 피동 표현이 잘못 사용되었으므로 ‘발견할’으로 고친다.
 ④ ㉣: 시간 표현이 어색하므로 ‘읽는’으로 바꾼다.

5.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논제 | 동네 골목길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
| 찬성 측 논거 | ○ (㉠) ○ CCTV는 안전한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 반대 측 논거 | ○ CCTV는 개인의 자유 및 사생활을 침해한다. ○ CCTV가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 ① CCTV를 설치하기 어려운 곳도 있다.
 ② CCTV 설치가 지역의 미관을 해친다.
 ③ CCTV는 각종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
 ④ CCTV를 설치하는 데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6. 다음은 ‘지역민을 위한 휴식 공간 조성’에 대한 글쓰기 개요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제문: 지역민을 위한 휴식 공간을 조성하자.

I. 서론: 지역의 휴식 공간 실태

II. 본론

1. 휴식 공간 조성의 필요성

- 가. 휴식 공간의 부족에 대한 지역민의 불만 증대
 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지역민의 요구 증가

2. ㉠

- 가. 휴식 공간을 조성할 지역 내 장소 부족
 나. 비용 마련의 어려움

3. 해결 방안

- 가. 휴식 공간을 조성할 지역 내 장소 확보
 나.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한 비용 마련

III. 결론: 지역민을 위한 휴식 공간 조성 촉구

- ① 휴식 공간 조성의 장애 요인
 ② 휴식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③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④ 청소년 직업 체험 프로그램의 필요성

[7~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世·생宗宗御·영製·쟁訓·훈民民正·경훈품

나·랏·말쓰·미中동國·귀·에달·아文문字·쫙·와·로서르
 ㉠ 스몛·디아·니홀·씨·이런전·츠·로 ㉡ 어·린百·빅姓·성·이
 니르·고·저·홀·배이·셔·도만·춤·내제·쁘·들시·러퍼·디
 :물홀·노·미하·니·라·내·이·틀爲·영·호·야 ㉢ :어엇·비
 너·겨·새·로·스·물여·뽕字·쫙·틀밍·그노·니·사름·마·다
 :히·여 ㉣ :수·뽕니·겨·날·로·부·메便뽕安한·키호·고·저홀
 쓰르·미니·라

- 『훈민정음(訓民正音)』 -

7. 윗글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두 자음군이 사용되었다.
 ② 두음법칙을 엄격히 지켜 표기하였다.
 ③ 현대 국어 표기에는 쓰이지 않는 ‘빙’이 쓰였다.
 ④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방점을 표기하였다.

8. ㉠~㉣ 중, 다음의 내용을 모두 충족한 것은?

○ 형태와 의미가 변화한 어휘이다.
 ○ 중세 국어에서는 ‘가엿게’의 의미로 쓰였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예쁘게’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9~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들이 물을 건널 때 머리를 쳐들고 있는 건, 하늘에 기도를 올리는 게 아니라 아예 물을 피하여 쳐다보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토록 위험한데도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이렇게 말한다.

“요동 벌판은 평평하고 넓기 때문에 강물이 절대 성난 소리로 울지 않아.”

[A] 하지만 이것은 사람들이 강을 몰라서 하는 말이다. 요하(遼河)는 울지 않은 적이 없었다. 단지 사람들이 밤에 건너지 않았을 뿐이다. 낮에는 강물을 볼 수 있으니까 위험을 직접 보며 벌벌 떠느라 그 눈이 근심을 불러온다. 그러니 어찌 귀에 들리는 게 있겠는가. 지금 나는 한밤중에 강을 건너느라 눈으로는 위험한 것을 볼 수 없다. 그러니 위험은 오로지 듣는 것에만 쏠리고, 그 바람에 귀는 두려워 떨며 근심을 이기지 못한다.

나는 이제야 도(道)를 알았다. ㉠ 깊고 지극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귀와 눈이 마음의 누(累)가 되지 않고, ㉡ 귀와 눈만을 믿는 사람은 보고 듣는 것이 더욱 섬세해져서 갈수록 병이 된다. 지금 내 마부는 말에 밟혀서 뒤 수레에 실려 있다. 그래서 결국 말의 재갈을 풀어 주고 강물에 떠서 안장 위에 무릎을 꿇 채 발을 웅송그리고 앉았다. 한번 떨어지면 강물이다. 그땐 물을 땅이라 생각하고, 물을 옷이라 생각하고, 물을 내 몸이라 생각하고, 물을 내 마음이라 생각하리라.

[B] 그렇게 한번 떨어질 각오를 하자 마침내 내 귀에는 강물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무릇 아홉 번이나 강을 건넌건만 아무 근심 없이 자리에서 앉았다 누웠다 그야말로 자유자재한 경지였다.

옛날 우 임금의 강을 건너는데 ㉢ 황룡이 배를 등에 짊어져서 몹시 위험한 지경이었다. 그러나 삶과 죽음에 대한 판단이 먼저 마음속에 뚜렷해지자 용이든 지렁이든 눈앞의 크고 작은 것에 개의치 않게 되었다. 소리와 빛은 외물이다. 외물은 언제나 귀와 눈에 누가 되어 사람들이 보고 듣는 바른길을 잃어버리도록 한다. 하물며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험난하고 위험하기가 강물보다 더 심하여 보고 듣는 것이 병통이 됨에 있어서라. 이에, 내가 사는 산속으로 돌아가 문 앞 시냇물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금 곱씹어 볼 작정이다. 이로써 몸가짐에 재빠르고 ㉣ 자신의 총명함만을 믿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바이다.

- 박지원, 「일야구도하기(一夜九渡河記)」 -

9. [A]와 [B]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낮에 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요하가 성난 소리로 울지 않는다고 말했다.
- ② [A]: 밤에 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위험한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 ③ [B]: 나는 강을 건너면서 두려움으로 인해 강물에 떨어졌다.
- ④ [B]: 강을 아홉 번 건너면서 나에게서는 강물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다.

10. 윗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외물을 통해 바른길을 찾을 수 있다.
- ② 몸가짐이 재빠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 ③ 크고 작은 사물을 섬세하게 들여다보아야 한다.
- ④ 보고 듣는 것에만 의지하여 판단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11. ㉠~㉣ 중, 글쓴이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지닌 대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② ㉡ ③ ㉢ ④ ㉣

[12~14]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북관에 혼자 앉아누워서
어느 아침 의원을 뵈이었다.
의원은 ㉠ 여래 같은 상을 하고 관공의 수염을 드리워서
먼 옛적 어느 나라 ㉡ 신선 같은데
새끼손톱 길게 든 손을 내어
묵묵하니 한참 맥을 짚드니
문득 물어 고향이 어디냐 한다.
평안도 정주라는 곳이라 한즉
그러면 ㉢ 아무개 씨 고향이란다.
그러면 아무개 씨 어느냐 한즉
㉣ 의원은 빙긋이 웃음을 띠고
막역지간이라며 수염을 쓸는다.
나는 아버지로 섬기는 이라 한즉
의원은 또다시 넋지시 웃고
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는데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워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

- 백석, 「고향」 -

12.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군.
- ② ‘나’는 아파서 고향으로 돌아갔군.
- ③ ‘나’는 오래 전부터 의원과 막역지간이군.
- ④ ‘나’는 의원의 손길에서 고향을 떠올렸군.

13.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성어를 반복하였다.
- ② 명령적 어조로 표현하였다.
- ③ 축약적 심상이 나타나 있다.
- ④ 반어적 표현 기법을 사용하였다.

14. ㉠~㉣ 중, 의미하는 바가 다른 것은?

- ① ㉠ ② ㉡ ③ ㉢ ④ ㉣

15. 다음을 적용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과 불일치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일치하는 표현은 최대화한다. 즉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한 다음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 ① 가: 지금 사무실이 덥네요. 창문을 열어 주실 수 있나요?
나: 제가 지금 창문을 열게요.
- ② 가: 수상을 축하해요. 작품이 매우 뛰어나던데요.
나: 부끄러워요. 다른 작품도 훌륭한데 제가 운이 좋았어요.
- ③ 가: 사무실에서 상품 기획서를 갖다 주시겠어요?
나: 잠시 다른 생각하느라 못 들었어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 ④ 가: 우리 다음 여행지는 유럽이 어때요?
나: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제주도는 어떨까요?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황만근이 없어지자 마을 사람들이 회관 앞에 모였다.

먼저 **이장**이 입을 열었다.

“만그인지 반그인지 그 바보 자식 하나 때문에 소 여물도 못 하러 가고 이기 뭐라. 스무 바리나 되는 소가 한꺼분에 밥 굶는 기 중요한가, 바보 자식 하나가 어데 가서 술 처먹고 집에 안 오는 기 중요한가, 씨그랄.”

마을에서 연장자 축에 들고 가장 ㉠ **학식**이 높아 해마다 한 번씩 지내는 용왕제에 축을 초하는 **황재석** 씨가 받았다.

“그래도 질래 있던 사람이 없어지마 필시 ㉡ **연유**가 있는 기라. 사람이 바늘이라, 모래라. 기양 없어지는 기 어디 있어. 암만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 아이라. 반그이, 아이다, 만그이가 여게서 나서 사는 동안 한 분도 밖에서 안 들어온 적이 없는데 말이라.”

“아이지요, 어르신. 가가 군대 간다 했을 때 여운지 토개인지 하고 밤새도록 싸우니라고 하루는 안 들어왔심다.”

용왕제에서 집사 역을 하는 **황동수**가 우스개처럼 말을 이었다. 아침밥을 먹기도 전 황만근의 아들이 찾아와 황만근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길래 얼굴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된 민 씨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생각하고 참견을 했다.

“어제 ㉢ **궐기** 대회 한다 하고 간 사람이 누구누구십니까. 황만근 씨하고 같이 간 사람은요? 궐기 대회 하는 동안 본 사람은 없나요?”

자리에 모인 대여섯 명의 황씨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더니 모두 고개를 흔들었다.

“사람이라고 밋 밋이나 되나. 군 전체 사람이 모도 모있다는 기 백 밋이 될라나 말라나 한데 반그이는 돼지고기 반 근만 해서 그런지 안 보이더라칸께.”

이장은 계속 빈정거리듯 말을 이었다. **민 씨**는 이장이 궐기 대회 전날 황만근을 따로 불러 무슨 말을 건네던 것을 기억해 냈다.

“그제 밤에 내일 궐기 대회 한다고 사람들 모였을 때 이장님이 황만근 씨에게 뭐라고 하셨죠. 모임 끝난 뒤에.”
이장은 민 씨를 흘기듯 노려보았다.

“왜, 농민보고 농민 궐기 대회 꼭 나오라 했는데, 뭐가 잘못됐나.”

민 씨는 자신도 모르게 따지는 어조가 되었다.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 명 안 되었다면서요. 그런 자리에 황만근 씨가 꼭 가야 합니까. 아니, 황만근 씨만 가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따로 황만근 씨한테 부탁을 할 정도로.”

“이 사람이 뭐라 카는 기라. 이장이 동민한테 농가 부채 ㉣ **탕감** 축구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가 있다, 꼭 참석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자 카는데 뭐가 잘못됐다 말이라.”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왜 황만근 씨만 못 오고 있나 하는 겁니다.”

-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

16. 위와 같은 글을 읽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 ㄱ. 주장과 근거를 구분하며 읽는다.
- ㄴ. 인물 간 갈등 관계를 확인하며 읽는다.
- ㄷ. 사건 중심으로 줄거리를 파악하며 읽는다.
- ㄹ. 글쓴이의 경험이 사실인지 확인하며 읽는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17. 윗글을 읽고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장은 황만근의 실종을 안타까워하면서 빨리 찾으려고 생각한다.
- ② 황재석은 황만근이 별다른 이유 없이 집을 나갔다고 생각한다.
- ③ 황동수는 황만근이 없어진 것을 중요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④ 민 씨는 황만근의 행방이 이장이 황만근에게 한 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18.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방언을 사용하였다.
- ② 공간적 배경이 전환되었다.
- ③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나타난다.
- ④ 인물의 외양 묘사가 두드러진다.

19.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학식(學識): 배워서 얻은 지식
- ② ㉡ 연유(緣由): 일의 까닭
- ③ ㉢ 궐기(蹶起): 시간, 힘, 정열 등을 헛되이 다 써 버림
- ④ ㉣ 탕감(蕩減): 빛이나 요금, 세금 따위의 물어야 할 것을 덜어줌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치 철학자로 알려진 아렌트 여사는 우리가 보통 ‘일’이라 부르는 활동을 ‘작업’과 ‘고역’으로 구분한다. 이 두 가지 모두 인간의 노력, 땀과 인내를 수반하는 활동이며, 어떤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다. 그러나 전자가 자의적인 활동인 데 반해서 후자는 타의에 의해 강요된 활동이다. 전자의 활동을 창조적이라 한다면 후자의 활동은 기계적이다. 창조적 활동의 목적이 작품 창작에 있다면, 후자의 활동 목적은 상품 생산에만 있다.

전자, 즉 ‘작업’이 인간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물리적 혹은 정신적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고역’은 그 정반대의 조건에서 행해진 ‘일’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일’이라고 불리는 활동에 땀을 흘리며 노력해 왔고, 현재도 그렇고, 아마도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일이 ‘작업’으로 불릴 수 있고 어떤 일이 ‘고역’으로 분류될 수 있느냐는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일을 작업과 고역으로 구별하고 그것들을 위와 같이 정의할 때 고역으로서 일의 가치는 부정되어야 하지만 작업으로서 일은 오히려 찬미되고, 격려되며 인간으로부터 빼앗아 가서는 안 될 귀중한 가치라고 봐야 한다.

‘작업’으로서의 일의 내재적 가치와 존엄성은 이런 뜻으로서 일과 인간의 인간됨과 떼어 수 없는 필연적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서 생긴다. 분명히 일은 노력과 아픔을 필요로 하고, 생존을 위해 물질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풍요한 생활을 위한 도구적 기능을 담당한다.

- 박이문, 「일」 -

20. 윗글의 내용 전개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선의 이동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 ② 기준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고 있다.
- ③ 실험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고 있다.
- ④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술하고 있다.

21.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한다.
- ② 일은 노력, 땀과 인내를 필요로 한다.
- ③ 일은 어떤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다.
- ④ 일은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 풍요를 위한 도구이다.

22. 윗글에 나타난 ‘작업’과 ‘고역’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요리사가 되고 싶어 새로운 조리법을 개발하는 것은 ‘작업’이겠군.
- ②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연습하여 실력이 향상되는 것은 ‘고역’이겠군.
- ③ 방이 지저분해서 꾸지람을 들은 뒤 억지로 방 청소를 하는 것은 ‘작업’이겠군.
- ④ 신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자발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고역’이겠군.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활자로 인쇄된 종이 책을 서점에서 값을 치르고 사와서 집에서 혼자 눈으로 읽는 독서 방식은 보편적인 것도 영원 불변한 것도 아니다. 현재 이러한 독서는 매우 흔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20세기에 들어서고 나서야 일반화되었다. 근대 이전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책을 소유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글자를 아예 읽을 수 없는 문맹자들도 많았으며,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차별 때문에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도 없었다.

옛사람들에게 책은 지금보다 훨씬 귀하고 비싼 물건이었다. 인쇄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고 책을 쓰고 읽는 일 자체를 아무나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옛사람들의 독서와 공부 방법은 요즘과 달랐다. 그들은 책을 수없이 반복해서 읽었고, 통째로 외는 방법으로 공부했다. 그리고 글을 쓸 때면 책에 담긴 이야기와 성현의 말씀을 인용하며 자기주장을 폈다.

조선 중기의 관료이자 시인인 김득신은 어렸을 때 천연두를 심하게 앓아 총기(聰氣)를 잃고 말았다. 그래서 김득신은 남들이 두어 번만 읽으면 아는 글을 수십 수백 번, 수천수만 번씩 읽고 외었다. 결국, 김득신은 과거에도 급제하고 시인이 되었다. 이 일화는 노력을 통해 목표를 성취한 사람의 감동적인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조선 시대의 독서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예이기도 하다. 고전이나 그에 버금가는 글을 수없이 읽고 암송하고 그것을 펼쳐 내는 일이 곧 지성을 갖추고 표현하는 일이었다.

- 천정환, 「시대에 따른 독서 문화」 -

23.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설문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 ② 역사 속 인물을 예로 들고 있다.
- ③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 ④ 공간의 변화에 따라 진술하고 있다.

24. 윗글을 읽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배경지식을 활용하며 읽는다.
- ② 여정과 견문을 구분하며 읽는다.
- ③ 사전에서 모르는 단어의 뜻을 찾으며 읽는다.
- ④ 중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구별하며 읽는다.

25. 윗글을 읽고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김득신은 총명해서 남들보다 쉽게 과거에 급제했다.
- ② 근대 이전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책을 소유하기 어려웠다.
- ③ 옛날 사람들은 책을 반복해서 읽고 외는 방법으로 공부했다.
- ④ 근대 이전에는 신분, 성별 등의 이유로 교육 기회가 제한되었다.